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 10 : 경북도민의 눈물'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9일(목),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0편 : 경북도민의 눈물”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경북도민의 눈물’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산불 재난 부실대응, ‘파괴의 미학’ 망언, 대선 경선 우선 행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 고통 외면과 행정 무능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민이 냉정한 평가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발간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5가지 문제를 부적절한 재난 대응, 정치·이념 갈등, 독단적 인사, 독립사 훼손 등의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 첫째, 부적절한 재난 대응으로 2025년 경북 최대의 산불 피해(이재민 2천 가구, 1조원 피해) 속에서 ‘파괴의 미학’이라는 발언을 한 것, 장기 휴가로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것, 피해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다루었다.
 - 둘째, 정치·이념 갈등 유발 책임으로서 “윤 대통령 석방 환영, 자유 우파가 사상전에서 이겨” 등 주장으로 옹호하고, 이지사의 ‘윤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시했다.
 - 셋째, 독단적 인사와 독립사 훼손으로 친일 논란 인사 임명, 의회 우회 기습 인사(행복재단·문화공사 사장),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호국보훈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경북편은 지방선거 앞두고 이철우 도정을 검토해 도민이 지역 발전 일꾼을 선택할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